

## 성경을 통해 보는 국가

권진관(교수, 성공회대 조직신학)

이 글에서 나는 국가란 무엇인가를 신학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나는 국가에 대한 세 가지의 입장을 검토할 것이다. 성서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입장이 있다고 나는 판단한다. 첫째는 국가에 대한 강력한 저항, 비판의 입장이다(삼상 8장). 둘째는 국가에 대한 적극적인 긍정의 입장이다(롬 13장). 셋째는 다이나믹한 것인데 성령론적인 입장이다.

### 1. 국가 자체에 대한 부정의 입장

구약시대의 모세 전통에서는 권력은 야훼 하나님에게만 주어진 것이었다. 예언자들과 사사들은 하나님의 일을 시중하는 정도의 임시직이었지 제도적인 권력기관이 아니었다. 국가나 왕권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저항으로 간주되었고, ‘야훼만’ 주의는 모세시대로부터 신약시대까지 면면히 이어져 내려왔다.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든가 요한계시록의 제국의 멸망에 대한 묵시는 하나님의 자리를 세상권력이 대신하는 것에 대한 강력한 저항의 표현이었다. 모든 악의 근원은 이러한 세상적인 국가와 제국의 권력에 있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인/유대인들은 생존을 위해 타민족들과 경쟁하는 과정에서 국가를 필요로 했다. 그리고 이스라엘/유

대 사회 내부의 제도적 비효율성 때문에 앞선 국가제도가 필요했다. 이것을 사무엘상은 잘 기록하고 있다. 다음은 사무엘상 8:1-22의 말씀이다.

“사무엘은 늙자, 자기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다. 맏아들의 이름은 요엘이요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비아다. 그들은 브엘세바에서 사사로 일하였다. 그러나 그 아들들은 아버지의 길을 따라 살지 않고 돈벌이에만 정신이 팔려 뇌물을 받고서 치우치게 재판을 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서 라마로 사무엘을 찾아가었다. 그들이 사무엘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어른께서는 늙으셨고 아드님들은 어른께서 걸어오신 그 길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 주셔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사무엘은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해 달라는 장로들의 말에 마음이 상하여 주께 기도를 드렸더니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 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하는 일마다 그렇게 하여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더니 너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 너는 이제 그들의 말을 들어 주되 엄히 경고하여 그들을 다스릴 왕의 권한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 주어라.’

사무엘은 왕을 세워 달라고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주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그대로 전하였다. ‘너희를 다스릴 왕의 권한은 이러하다. 그는 너희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다루는 일을 시키고 병거 앞에서 달리게 할 것이다. 그는 너희의 아들들을 친부장과 오십부장으로 임명하기도 하고 왕의 발을 갈게도 하고 곡식을 거두어들이게도 하고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다. 그는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유도 만들게 하고 요리도 시키고 빵도 굽게 할 것이다. 그는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 밭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왕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너희가 거둔 곡식과 포도에서도 열에 하나를 거두어 왕의 관리들과 신하들에게 줄 것이다. 그는 너희의 남종들과 여종들과 가장 뛰어난 젊은이들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왕의 일을 시킬 것이다. 그는 또 너희의 양떼 가운데서 열에 하나를 거두어 갈 것이며 마침내 너희들까지 왕의 종이 될 것이다. 그 때에야 너희가 스스로 택한 왕 때문에 울부짖을 터이지만 그 때에 주께서는 너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일러주어도 백성은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고 말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그 왕이 우리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의 모든 말을 듣고 나서 주께서 들으시도록 다 아뢰니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의 말을 받아들여서 그들에게 왕을 세워 주어라.’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각자 자기의 성읍으로 돌아가라고 일렀다.”

사무엘 시대에 왕권을 요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름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 사사(판관)들에 의한 일시적인 외적 방어행위나 분쟁해결 구조만 가지고는 이스라엘 사회가 좀더 발전된 주변 도시국가들의 왕권제도에 의한 방어능력이나 행정능력에 비해서 뒤떨어진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은 잘 알고 있었다. 특히 더 효율적인 군대제도(천부장, 오십부장)가 필요했다. 사무엘서의 저자(집단)는 야훼 유일적인 신명기적 사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국가제도를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의존이 약화되거나 사라질 것이며, 야훼 유일주의에 치명적인 손상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는 사울왕의 시대를 이어서 다윗왕권으로 진행하면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된다. 그만큼 왕권제도와 그에 기초한 국가제도는 문제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대단히 효율적인 것이었다. 그리고 국가제도에 의해서 이스라엘주의, 유대주의가 성립되어 민족적 전통이 확립되었다.

국가라는 제도는 인류사가 발전하면서 필연적으로 나타난 산물이다. 국가의 성립을 사무엘서 사가의 증언처럼 인간의 집단적인 죄의 결과로 보아야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허락 하에서 만들어진 좋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이 왕권시대로 넘어가면서, 이스라엘의 왕권옹호 지식인들, 사가들은 다윗왕권을 정당화하고 그것이 이스라엘/유대의 정통성을 잇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시편의 글들은 다윗 왕권을 옹호하거나 찬양하였다. 다윗 왕권은 하나님이 허락한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할 인간 제도였다. 그럼에도 사무엘서, 열왕기, 역대기 등의 신명기 사학파들(Deuteronomists)의 입장은 왕권과 그에 기초한 국가가 하나님 앞에 계속 죄를 지었다는 입장에서 이스라엘의 왕조사를 기록하였다. 그리고 그 죄가 축적되어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고 기록하였다. 이러한 왕권에 대한 비판은 세상 권세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왕(새로운 다윗 왕)을 기대하게 하였다. 이사야서에서는 새로운 왕이 다윗 가문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하였고, 공관복음서는 이를 예수로 보았다.

그러나 이사야서에서는 아주 이상한 메시아 왕이 그려지고 있다. 고난 받는 하나님의 종인 바로 그 메시아인데, 이 메시아는 왕권적인 광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보기에 역겨운 고난 받는 자이자 종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 이러한 메시아는 신약성서의 십자가에 달려 죽는 예수의 모습과 매우 유사한 것이었다. 이러한 고난 받는 하나님의 종의 모습은 나라가 멸망하고 제국에 의해 종으로 끌려가는 유대인들의 자기 정체성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경험 속에서 새롭게 다가오는 왕은 고난 받는 종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했다. 예수의 역사적 삶의 모습에서 제자들은 이러한 새로운 왕을 보았던 것이다. 이러한 전통은 ‘왕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전통을 그리스도교 전통 안에 만들어 놓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왕이라면 그러한 왕은 권력과 위계적인 왕이

아니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 꼴찌가 되어야 한다, 다스리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종으로서, 섬기는 자로서의 그리스도의 모습은 세속적인 왕권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예수가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는 당시의 로마제국이나 그 대항자였던 헤롯왕권과 성전권력의 지배, 수탈적인 권력구조에 반대되는 섬기며 사랑하며 나누는 나라였다. 예수는 이러한 새로운 꿈을 열었으며, 국가권력의 참모습은 지배하고 수탈하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특히 고난 받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섬기며, 돕고, 살리는 것이라는 가르침을 인류에게 주었던 것이다.

## 2. 국가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

사도 바울은 예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고 로마제국 안으로 들어간 사람으로, 로마제국이라고 하는 제도적 국가의 현실을 무시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국가가 가져오는 폐해와 폭력성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의 가르침은 매우 직설적이지만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들이었다. 강력한 로마 제국 속에서 예수의 복음과 정신을 확장하는 것이 얼마나 창조적이어야 하는가, 그리고 그 창조성이 그리스도의 정신에 얼마나 강력하게 뿌리를 박아야 하는가를 바울은 잘 보여주었다.

그는 무조건 권력을 찬양하고 아부하는 궁정 예언자가 아니었다. 그는 폭력을 휘두르는 무모한 반란자도 아니었다. 그는 사랑과 평화를 실천하였고,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선포하였고, 평등공동체인 그리스도인 공동체 에클레시아를 세웠다. 이러한 선포와 행위는 위계적 권위주의 체계인 로마체제와는 반대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그는 로마 국가에 대해 직접적으로 대항하지 않았다. 오히려 국가는 좋은 것이어야 한다는 긍정적인 입장을 가졌다. 여기에서 그의 현실주의에 기반한 이상주의를 볼 수 있다. 그는 국가가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한 면에서 현실주의자였다. 그러나 국가는 국민들을 보호

하고 선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이며 그럴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는 것이라는 이상주의를 가졌다. 그의 유명한 로마서 8:1-7의 전문을 보자.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요 거역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치안관들은 좋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에게만 두려움이 됩니다. 권세를 가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려거든 좋은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서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통치자는 여러분 각자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각자가 나쁜 일을 저지를 때에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는 공연히 칼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쁜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진노를 두려워해서만이 아니라 양심을 생각해서라도 복종해야 합니다. 같은 이유로 여러분은 또한 조세를 바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바로 이 일을 하는 데 힘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십시오. 조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해야 할 이는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이는 존경하십시오.”

로마서 13장은 과거 유신 군사독재시절에 정부 측(특히 당시 국무총리였던 김종필)이 정권 옹호를 위해 즐겨 사용했던 구절이었다. 당시 유신 군사독재정부를 비판했던 기독교인들에게 보수적 기독교 지도자들도 이 구절을 활용하여 응수하였고, 독재정권을 비호하였다. 그러나 이 텍스트는 불의한 권력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다. 이 텍스트에 의하면, 통치자는 우리들에게 유익을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의로운 자

다. 이 텍스트는 정의롭고 유익한 권력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모든 권세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말은 틀린 것이다.

정부(권력)가 국가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정부는 국가의 기능을 대행하고 있다. 정부가 국가의 중심이다. 그러나 정부는 국가의 전부일 수 없으며, 특히 악한 정부일 경우 더욱 그렇다. 국가의 중심은 주권재민(主權在民)의 국민들이다. 정부가 국민들을 탄압하거나 국민의 아픔을 외면해 버린다면, 그것은 국가가 아닐 뿐 아니라 잔당일 뿐이다.

국가란 국민들을 안녕하게 하고 잘 살게 하도록 일하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롬 13). 그럼에도 오늘의 정부는 세월호 사건의 유가족들이나 저항적인 국민들을 무차별 탄압하고 무력화시키고 있다. 좋은 국가는 좋은 권력자 즉 좋은 정부를 가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는 국민에 대해 적이 된다. 그건 국가가 아니라, 한갓 못된 정부, 독재 정부일 뿐이다. 그러한 정부는 국민들을 찬반의 두 집단으로 분열시켜 놓음으로써 국민들의 삶 속에 불안을 증가시키며, 해악을 가져온다. 특히 가장 약한 국민들을 보호하는 것이 정부의 필수적인 기능이다. 그러므로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정부는 당연히 물러나거나 무너져야 한다. 그것은 국가를 담당할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번 세월호 사태에서 이것을 극명하게 보여줬다고 말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사회적 소수자들, 약자들을 배제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 state(국가)라는 말은 일정한 테두리에 갇혀 있는 상태 즉 어떤 고정된 상태를 의미한다. 오늘날 박근혜 정부 하에서의 국가(state)는 배제적인 상태, 즉 소위 비정상인 사람들, 성적 소수자들, 비정규 노동자, 해고자, 사회적 약자,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 등을 사회 주류로부터 밖으로 몰아내는 배제의 메커니즘(기제)으로 보인다. 이러한 국가는 배제의 기제일 뿐이다. 이러한 배제적 기제의 수호자로 자처하는 자들이 있다. 폭식 퍼포먼스, 가스통 시위 등을 서슴지 않는 불량배들이 자기들의 열등의식을 보상받으려고 파쇼적 행동을 하면서 약자들을 괴롭히는데, 이들에게서 이러한 배

제의 기제로서의 국가(state)의 더러운 모습을 잘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국가란 배제의 기제를 의미한다. 따라서 마르크스 등 래디칼들은 국가(state)는 없어져야 할 것으로 치부한다. 오늘날 교조적인 반공주의와 경제성장주의에서 나타나는 맘몬주의는 사회적 약자들이나 반대 세력들을 불순분자, 특히 중북주의자로 몰아 배제하는 기제가 강화되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국가주의(statism)의 모습이다. 박근혜 정부는 왜 부패한 줄부들을 입각시키거나 중용하는 것일까? 왜 이 정부는 재벌들의 불법적인 상속을 눈감아주고, 대기업들을 보호하는 일에는 그렇게 열심일까? 이러한 것을 볼 때 정부나 국가는 무용할 뿐 아니라, 악한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일은 국가가 국민과 민중을 위해서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 ① 자본과 시장이 가지고 있는 힘의 부정적인 효과를 제어하여 서민들에게 일자리와 복지를 제공하는 일
- ② 법과 질서를 유지하여 약자를 강자로부터 보호하는 일
- ③ 부의 사회적 분배
- ④ 독점적 외국의 자본력과 금융자본의 맹공과 초강국의 지배력의 확산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일
- ⑤ 민족, 종족, 문화의 보호
- ⑥ 안전과 국방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

국가는 본질적으로 반인민적이고 불의한 것이므로 존재 자체를 부정해야 한다고 하는 무정부주의자들의 주장을 필자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것은 현실적이지 않은 담론이기도 하지만 (즉, 인간 역사 속에서 국가가 소멸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국가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위에 나열된 것처럼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러한 국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한 국가는 저절로 주어지거나 생기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노력과 투쟁과 갈등과 고난의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렇다



면 그것을 어떻게 만들고 형성할 수 있는가? 이제 세 번 째의 국가 이해로 넘어가자.

### 3. 성령론적, 시민사회적, 민중적인 관점에서의 국가

나는 이 글에서 성령론적인 것과 시민사회적인 것을 동일하게 보고 있다. 나의 다른 글에서도 이미 밝힌 바 있지만, 성령은 무엇보다도 소통의 영이다. 정의로운 생명의 영은 사람들 사이에 소통하게 하시는 영이다. 사람들 사이에 소통이 일어날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 특히 창조적이고 정의로운 역사가 일어난다. 정치신학의 관점에서 볼 때 성령은 개인의 영이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 사이에 움직이시고 이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소통하게 하여서 성령이 허락하는 지혜에 이르게 하는 영이다. 그러므로 성령은 무엇보다도 다수의 사람들 사이에서, 정치적 공간에서 일하신다. 성령은 사회적, 정치적 소통의 영이라고 하겠다. 우리는 이러한 정치사회적 공간 속에 존재하는 소통의 영역을 공공의 영역이라고 부른다. 성령은 이러한 공공의 영역을 열어주시며, 그 속에서 움직이신다. 그리고 이 소통의 영역인 공공의 영역이 모태가 되어 올바른 국가를 잉태할 수 있다. 권력은 이러한 공공의 영역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타락하고 만다.

공공의 영역 속에서 그 성원들이 자유롭게 소통하며 대화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 공공의 장은 진정한 것이 된다. 우리 사회는 네 개의 섹터(sector)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네 개의 섹터는 국가, 시장, 시민사회, 민중이다. 이 중에서 시민사회는 공공의 장으로서, 다른 두 구성인자인 국가와 시장을 계도하는 ‘영적인’ 공간이 된다. 그리하여 시민사회는 국가와 시장(자본)이 국민들, 특히 약자들을 위해서 선한 일(복지와 인권의 보장)을 할 수 있도록 계도하는 역할을 한다. 국가와 시장이 시민사회의 공간 안으로 들어올 수 있거나, 아니면 시민사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은 NGO들, 대학, 교회, 언론, 노동조합 등이다. 이러한 대화적이며 중립적인 시민사회의 구성원들이

건강하게 자기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도 현실적으로 쉽지만은 않다. 시민사회 구성원들이 국가와 시장에 종속되기 쉽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서 시민사회 안을 들여다보면, 시민사회 안에 있는 약자들, 즉 민중들, 그중에서 노동자들이 이해관계와 삶에 있어서 서로 다른 입장으로 갈라져 있다. 노동계급은 정규, 비정규, 임시직, 외국인 노동자, 여성 노동자, 사무직, 생산직, 전문직 등 다양하게 나뉘어져 있다. 그 중에서 비정규 임시직 노동자들의 수가 급격히 늘어났고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렇게 분열된 노동계층은 자기 안의 이질적 구성원들의 문제로 갈등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월등한 세력인 국가와 자본(시장)을 감시하거나 견제해 내기가 어려워진다. 시민사회는 결집력이 약화되면서 국가와 자본에 편입되기도 한다. 또한 이미 약화된 시민사회가 지식있고 능력있는 중산층에 의해 장악됨으로써, 노동계층과 약자들은 시민사회로부터 이탈되고 또 다른 섹터로 남는다. 이것을 민중 섹터, 즉 제 4섹터라고 보자.

제 4섹터인 민중은 국가와 시장 세력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소외된다. 이들은 소외되어 없는 자들로 취급되어, 쌍용자동차 해고, 세월호 사태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지속적으로 죽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공적인 영역은 좁아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추세를 자본(시장)은 국가를 동원하여 강화시키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신자유주의 세계의 모습이다. 비정규, 임시직 등 취약한 노동계층과 빈민들이 제 3섹터인 시민사회로부터 이탈하여 다른 섹터로 몰려지고 모이지면서 소외된다. 이와 함께 공공적 대화의 공간(시민사회)은 더욱 좁아지고, 사회는 계속해서 불안해지고, 사회적 약자들의 복지와 참여는 제한되고 만다.

이러한 악순환을 극복할 수 있는 이상적인 상태는 이 제 4의 섹터와 제 3의 섹터가 하나로 다시 결합하여 3개의 섹터(3 sectors)로 재정립되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시민사회의 지식인들, 전문가들은 사회적 약자들과의 연대를 지속해야 한다. 그럼시는 이러한 지식인을 ‘유기적 지식인’이라고 불렀다. 유기적 지식인들은 약자들인 민중과의 연대를 통하여 국가와 시장(자본)을 계도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공적인 공간을 확장할 수

있다. 이러한 유기적 지식인의 역할을 교회를 비롯하여 학계, 언론, 노동조합 등이 감당해야 한다.

#### 4. 결 론

우리는 위에서 국가란 약자들을 돌보고 그들의 생명을 돌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런 면에서 국가는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좋은 국가가 되기 위해서 권력자들은 봉사자,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를 통해서 확인하였다. 그러나 국가와 정치권력은 타락하기 쉽다. 이를 감시하고 계도하기 위해서는 공적인 공간이 탄생해야 한다. 시민사회와 그것을 구성하는 유기적 지식인들은 민중과의 정의로운 연대를 통하여 국가와 자본을 지속적으로 견제하고 이끌 수 있어야 한다. 전문적 지식계층과 민중이 서로 분열되어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유기적 지식인들이 이 양자를 잇는 연대의 일을 성실히 감당해야 한다. 또한 유기적 지식인들은 시민사회 안에 자유롭게 대화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적인 공간을 넓혀야 한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의로운 크리스천들은 유기적인 지식인이 되어야 한다. 약자들 편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들을 공론의 장으로 끌어 들이는 역할을 성실히 감당하는 일이 중요하다. 공론의 장은 생명의 영이 움직이고 소통하는 공간이다. 이 성령의 능력 속에서 국가와 시장이 모든 사람들, 특히 약자인 민중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을 가져본다. 공적인 공간 속에서 역동하시는 성령님은 우리나라를 변혁하여 민중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민중들이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아름다운 나라로 바꿔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기도한다. 교회는 이러한 영적인 공간, 공공의 영역을 확장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農